

## 밀턴과 요한복음의 장님\*

이병은 (한성대)

밀턴(John Milton)은 그의 산문시대의 한복판인 1652년 완전 실명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약했었으나 학창 시절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눈을 무척 혹사시켰다. 그의 눈은 1644년 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처음엔 왼쪽, 그리고 몇 년 후 오른 쪽 눈까지 잃게 되었다. 그의 실명은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기에 시력을 잃는다는 두려움도 많았으나, 그는 “의무, 명예,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으로 장님이 되길 택하였다고 자술하고 있다.<sup>1)</sup> 밀턴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산문으로 많은 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었고, 적들에게는 그의 실명은 신이 밀턴에게 내린 벌이라는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은 밀턴이 그의 실명을 옹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장님을 그와 동일시

---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1) 『영국민을 위한 옹호』(*A Second Defence of the English People*) 4:587. 밀턴의 산문은 울프(Don M. Wolfe)의 『존 밀턴의 산문』(*The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에서 인용하며, 이하 CPW로 표기한다.

하였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는 성경의 장님처럼, 신의 뜻에 의하여 장님이 되어 신의 목적대로 그가 사용되었고, 그의 고통이 내면의 참된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하여졌고, 그의 실명이 결코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들이 이 논문에서 풀어내려는 세 가지 요점이다. 더욱이 밀턴은 단순히 그의 적들의 공격에서 그를 방어하려고만 요한복음의 장님과 그를 동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실명은 선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하여 성스럽게 신이 정한 결과임을 강조하여 그 스스로의 자존심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그동안 많은 밀턴학자들이 밀턴의 실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왔다. 그중 브라운(Eleanor Gertrude Brown)의 『밀턴의 실명』(*Milton's Blindness*)은 1930년대에 출판되었으나 실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주어, 아직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실명의 원인은 선천성 매독(congenital syphilis), 백내장(cataract), 난시(astigmatism), 시신경교차상 낭포성 종양(suprachiasmal cystic tumor) 등의 가설이 있는데, 헌터(William B. Hunter, Jr.)가 녹내장(glaucoma)이 원인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잘 정리해놓았다. 무엇보다도 실명에 대한 밀턴의 자전적인 기록, 그의 작품에 실명이 미친 영향 등 문학적 요소들은 틸라드(Tillyard), 마송(David Masson), 파커(William Riley Parker) 등의 저명한 밀턴 전기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였다. 밀턴이 요한복음 9장의 장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는 주제는 밀턴 스스로가 성경의 장님을 암시한 적이 있는 등, 적지 않은 글에서 언급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밀턴 연구에서 밀턴이 요한복음 9장의 장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연구는 없어서 이러한 시도를 이 논문의 의미로 본다.

밀턴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자신이 당대 최고의 석학 중의 한 명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1644년 이전의 작품에는 전혀 요한복음의 장님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력을 잃기 시작하기 전에는 장님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요한

복음의 장남에 관한 언급 또한 암시는 1649년에 발표된 『우상타파론』(Eikonoklastes)에서 1번, 1652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였다고 사료되는 『기독교 리론』(De Doctrina Christiana)에서 9번, 1652년경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실명에 관한 시인 소네트 19번에서 성경의 장남에 관한 1번의 암시, 그리고 완전 실명 이후 1654년에 출판된 『영국민을 위한 두번째 옹호』(Pro Populo Anglicano Defensio Secunda)에 1번의 언급이 있다. 밀턴이 그의 작품에서 고전 문학, 역사, 그리고 성경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경향을 염두에 두면, 밀턴이 그가 처한 곤경을 정당화하고 그의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경의 장남을 자신과 연관지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밀턴이 요한복음의 장남과 자신을 동일화시킨 첫 번째 요소는 그와 장남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려고 시력을 빼앗겼다는 점이다. 즉, “예수께서는 . . .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sup>2)</sup>(요한복음 11:4)라는 구절 같이, 신을 찬양하려는 위대한 목적이었고 밀턴이나 장남에게는 특전이었던 생각이다. 요한복음 9장의 장남 구절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9:1-3)

성경의 장남은 분명히 예수의 기적 행사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밀턴은 자신의 경우는 성경의 장남의 경우같이 극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단지 신이 그에게서 세속의 빛을 가져가는 대신에 성스러운 내면의 빛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2) 우리말 성경의 인용은 신구교 공동번역에서 가져온다.

밀턴의 실명은 고통이라기 보다는, 옛날 [장님이었던] 시칠리아의 덕망있었던 왕인 티몰레온, 로마의 검열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처럼 신이 그를 선택하였다는 증명이었다.

His blindness is less an affliction than a proof that God has marked him out like the great men of old, Timoleon the virtuous King of Sicily, Appius Claudius the Roman Censor, for some remarkable work. (Tillyard 164)

그러므로 그를 강하게 만들고 그를 인도하였던 내면 깊은 곳의 정신적 통찰력으로 신을 찬양하기 위한 『실낙원』(*Paradise Lost*)을 썼다. 그는 “천상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위안과 힘 속에서 나는 신의 뜻을 이행할 수 있었다”(『두번째 옹호』 826)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밀턴의 언급에, 같은 장님이었던 헬렌 켈러(Helen Keller)는 “앞을 못보는 밀턴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영감을 꿈꾸었다. 내면의 빛으로 가득차서 그는 인류가 천국의 영역을 볼 수 있게 만든 빛을 내뿜었다”(Section 5, 3쪽)라고 했다. 이는 또한 『실낙원』을 씀으로써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복음 5장 16절)라는 예수의 계명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다.

내면의 빛을 가진 자의 역할을 직시하면서 밀턴은 그 스스로 시인이자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지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밀턴은 고대의 위대한 시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나와 같은 운명이었던 / 눈먼 탈미리스나 역시 장님이었던 마에오니데스를 잊어버리진 않았고, / 또한 옛 예언자들인 / 티레시아스, 그리고 피네우스와 / 명성에서 동일하였으면 한다”(PL 3:32-36)<sup>3)</sup>라고

3) . . . nor sometimes forget

Those other two equall'd with me in Fate,  
So were I equal'd with them in renown,  
Blind Thamyris and blind Mæonides,  
And Tiresias and Phineus Prophets old.

노래한다. 밀턴이 비록 앞을 못보지만 뛰어난 예언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한때 밀턴의 비서 역할을 하였던 시인 마블(Andrew Marvell)의 『실낙원』에 대한 헌시에서도 잘 표현되었다.

당신의 작품이 가진 위엄은  
 세속적인 이들을 멀리하고, 신실한 이들을 가까이하고,  
 당신이 다루는 성스러운 것들은  
 그들을 성스럽게 만들고, 당신을 신성케 만들지요.  
 당신은 큰 위엄과 편함으로 노래하고  
 우리를 기쁨과 공포 속에 가두어 놓지요.

.....  
 그 한계의 시어들을 당신은 어디서 발견했는가?  
 그 넓은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티레시아스처럼 하늘이 당신의 눈땀을  
 예언의 능력으로 보상해 주었소.

That majesty which through thy work doth reign  
 Draws the devout, deterring the profane.  
 And things divine thou treat'st of in such state  
 As them preserves, and thee, inviolate.  
 At once delight and horror on us seize,  
 Thou sing'st with so much gravity and ease;

.....  
 Where couldst thou words of such a compass find?  
 Whence furnish such a vast expanse of mind?  
 Just heaven thee, like Tiresias, to requite,  
 Rewards with prophecy the loss of sight.  
 (“On Mr. Milton’s *Paradise Lost*” 31-36; 41-44)<sup>4)</sup>

---

밀턴의 시는 휴즈(Merritt Y. Hughes)의 『존 밀턴: 시와 주요 산문』(*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에서 인용한다.

4) 마블의 시는 도너(Elizabeth Story Donno)의 『앤드류 마블: 영국시집』(*Andrew Marvell: The Complete English Poems*)에서 인용한다.

신이 밀턴의 시력을 빼앗은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신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는 밀턴의 주장을 마블도 인정을 한 셈이 된 것이다.

밀턴이 새로운 예언의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은 영적인 빛(the spiritual light)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요한의 장님과 동일시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다. 복음서의 장님이 예수로부터 받은 통찰력은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예수가 행한 기적의 힘으로 시력을 갖게 된 후에, 그는 선천적 소경으로 구걸을 하던 사람답지 않는 행동과 자세로 당시의 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이파(Pharisees) 사람들과의 언쟁에서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던 말이오?”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르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주체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9:26-34)

그는 예수로부터 영적인 빛을 받고 깨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받은 내면의 빛은 믿음이었고 신의 자비이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9:35) 라는 예수의 질문에 그는 “주님, 믿습니다”(9:38) 하며 영적인 개안을 증거하고 있다.

하지만 밀턴의 육체적 체험은 요한복음의 장님과 다른 점이 있어 밀턴으

로서는 유사점을 찾아야 했다. 밀턴으로서는 실명이라는 그의 불행한 결함을 보상할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고, 다른 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빛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의 장님이 받은 영적인 빛과 밀턴의 의도하는 그가 받은 영적인 빛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찌피 밀턴과 성경의 장님은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이 판이하게 달라서 그들의 내면의 빛은 똑같기가 어렵다.

밀턴이 생각하는 통찰력은 17세기 종교개혁의 개신교 성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면의 빛과 연결된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내면의 빛이란 각 개인이 신의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밀턴으로서는 처음 실명에 처했을 때 가졌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 무력감과 낙담에서 벗어나서, 그가 평생 원하던 『실낙원』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을 때 발견한 신으로부터의 자비였을 것이다. 그의 내면의 빛을 통하여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밀턴으로써의 힘을 되찾았고 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봐야한다.

많은 밀턴 학자들은 『투사 삼손』(*Samson Agonistes*)에서의 낙담하는 구절이<sup>5)</sup> 밀턴 자신의 자서전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밀턴의 믿음과 자존심을 고려하면, 삼손의 절망적인 구절이 그 자신의 이야기라고 독자들이 생각하길 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sup>6)</sup> 물론 밀턴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에게 패배자로 인식되게끔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두번째 옹호』에서의 표현이 가장 정확한 자서전적 고백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5) II. 67-82; 151-163; 563-567; 644-646; 943-944. 예를 들어, 콜린스(John Churton Collins)는 “그의 실명에 대하여 독백하는 장면에서의 삼손이 밀턴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하다”(8)고 주장한다.

6) 브라운은 왕정복고 한 달 전에 몽크 장군(General Monk)에게 왕정복고를 반대하며 공화정의 건설을 주장하는 『자유 공화정 건립의 준비되고 쉬운 길』(*The Ready and Easy Way to Establish a Free Commonwealth*)를 쓴 밀턴의 자존심을 고려하면, 밀턴이 자신에게 창피스럽거나 명예스럽지 못한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다(99).

사도들이 언급하였듯이 약함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마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영원하고 완전한 힘은 힘차게 솟아 오르고, 나의 어두움 속에서 신이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빛은 더욱 분명하게 빛난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약한 동시에 가장 강한 이가 될 것이고, 앞을 못보는 동시에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불안진으로 나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 어두움 속에서 나는 빛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확실한 것은 우리 장님들은 신의 관심을 덜 받는 이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 외의 어떤 것도 잘 느끼지 못하는 만큼, 신은 우리를 더 자비롭고 은혜롭게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조롱하거나 해치는 자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There is a certain road which leads through weakness, as the apostle teaches, to the greatest strength. May I be entirely helpless, provided that in my weakness there may arise all the more powerfully this immortal and more perfect strength; provided that in my shadows the light of the divine countenance may shine forth all the more clearly. For then I shall be at once the weakest and the strongest, at the same time blind and most keen in vision. By this infirmity may I be perfected, by this completed. So in this darkness, may I be clothed in light. To be sure, we blind men are not the least of God's concerns, for the less able we are to perceive anything other than himself, the more mercifully and graciously does he deign to look upon us. Woe to him who mocks us, woe to him who injures us. (4:589-590)

이러한 밀턴의 강함은 『투사 삼손』에서 다음과 같은 삼손의 구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 얼마나 많은 악마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를 아는가! / 과거에는 최악이었으나 지금은 가장 나를 안괴롭히는 것은 / 앞 못봄일세” (Yee see, O friends, / How many evils have enclos'd me round; / Yet that which was the worst now least afflicts me, / Blindness, 193-196행). 코러스의 묘사에도 우리는 밀턴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앞을 못보고



멀시받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지만,  
 밝게 빛나는 내면의 눈으로  
 불같은 덕이 그를 재 속에서  
 갑자기 타오르는 불꽃으로 일으켜 세웠다.

.....

가장 무력하다고 여겨졌을 때,  
 불사조의 자궁으로부터 이제 풍만해지고,  
 다시 살아났고, 다시 풍성해지고, 가장 강건해졌다.

But he though blind of sight,  
 Despis'd and thought extinguish't quite,  
 With inward eyes illuminated  
 Him fiery virtue rous'd  
 From under ashes into sudden flame,

.....

From out her[phoenix's] ashy womb now teen'd,  
 Revives, reflourishes, then vigorous most  
 When most unactive deemed. . . . (ll. 1688-1692; 1703-1705)

밀턴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 중 밀턴의 자존심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비난은 그의 실명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었을 것이다.<sup>7)</sup> 특히 『영국민을 위한 옹호』(*Defencio pro populo Anglicano*) 출판 이후, 살마시우스(Claudius Salmasius), 물린(Pierre du Moulin), 모어(Alexander More) 등에게 맹렬히 비난받으며 그의 실명이 찰스 1세의 처형을 옹호한 죄의 결과라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는 레스트랑쥐(Roger L'Estrange), 베일리(Robert Baillie) 등에 의하여 그의 실명은 놀림감이 되었다.<sup>8)</sup>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요한복음 9장을

7) 밀턴은 『영국민을 위한 두 번째 옹호』에서 “나의 적들은 이러한 고통이 나의 펜의 공격에 대한 징벌이라고 떠들고 다닌다”(825)라고 적고 있다. 『투사 삼손』에서 삼손이 적으로부터 실명에 대하여 조롱받는다는 장면은 110-114, 646, 944-945행 등을 참조.

8) 밀턴을 비난한 인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히 Brown 139-140, Masson, 6:660과 717 참조.

밀턴에게는 아주 적당한 방어로 다가왔을 것이다.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던 성경의 인물은 예수로부터 빛을 못 보는 것이 그의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구원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요한복음 9:2-3). 성경의 인물들을 자신과 비교하길 좋아했던 밀턴으로서는<sup>9)</sup> 그의 반박의 근거로 삼을 만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주시면서, 그의 죄나 그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When, finally, it is perfectly certain from the divine testimony of Christ our Savior that the man who was healed by Him had been blind from the very womb, through no sin of his own or of his parents. (*Defensio Secunda* 4:587)

하지만, 밀턴이 그 자신과 요한복음의 장님을 동일하게 간주한 이유가 단순히 그의 비난자들에 대하여 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바커(Arthur Barker)의 주장대로 밀턴은 “하늘이 그를 버렸다는 느낌에서 그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었을”(233) 것이다. 밀턴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방법은 그의 자아에 대한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실낙원』의 집필도, 물론 그의 표현대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겠지만 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임이었음도 부인하긴 어렵다. 밀턴이 언급하는 내면의 빛은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라고 간주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sup>10)</sup>

9) 프렌치(John Milton French)는 밀턴 당시의 다른 많은 학자들처럼 밀턴도 성경에서 거의 자서전같은 여러 요소들을 발견하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amily” 366).

10) 밀턴은 그에 비난적인 인물들과 상대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실명이 여러 가지로 보상

밀턴이 요한복음의 장님과 동일시한 이유가 단순히 그의 적들에게서 그를 방어하려는 의도만은 아닌 듯 보인다. 그는 “하늘이 그를 버렸다는 느낌에서 그를 해방시킬 필요”(Barker 233)가 있었고, 밀턴답게 그는 자존심을 살리면서 그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실낙원』의 집필의 목적도 그의 시구절대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정당화하기 위하여”(“justify the wayes of God to men” 1:26)라기보다는, 오히려 밀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그의 내면의 빛도 그 스스로 남보다 월등하다고 간주하기 위한 일종의 독특한 수단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의 시작(詩作)의 의미는 신을 인간에게 보여준다고보다는, 오히려 로빈스(Harry Robbins)의 언급대로 (361) 모세(Moses), 어거스틴(Augustine), 루터(Luther), 칼뱅(Calvin)이 행한 것과 같이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밀턴이 그의 조국과 영

---

받았다는 주장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무엇을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내면의 빛이라는 종교적 특수성은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의 글 여러 곳에서 언급된다. 다음은 『실낙원』의 예이다.

[성령이시여] 저의 내면에 천상의 빛을  
 아주 밝게 비추시어, 그 빛의 힘으로  
 제 마음도 밝게 만들어, 제 눈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여, 모든 안개들이 정화되어 흩어져서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을 제가 보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So much rather thou Celestial Light  
 Shine inward, and the mind through all her powers  
 Irradiate, there plant eyes, all mist from thence  
 Purge and dispurse, that I may see and tell  
 Of things invisible to mortal sight. (PL 3:51-55)

그는 또한 그의 실명은 오히려 신의 자비로운 선물이어서, 보통 인간의 눈에 쓸데 없는 것을 차단시켜서 보다 중요한 영혼적인 문제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게 된 특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의 실명은 . . . 세상 일의 여러 복잡한 일로부터 나의 시야를 가려주고, 덕과 진리의 아름다움과 견실함을 자유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두번째 옹호』에서 언급한다. 이어서 “나는 앞을 못보는 가운데서 신의 은총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 내 자신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었다”(826)라고도 쓰고 있다.

국민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희생으로 사심없이 그의 시력을 포기하였다는 칭찬이 그가 가장 듣기 원하였던 말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밀턴, 요한복음의 장님, 『실낙원』, 『영국민을 위한 옹호』, 내면의 빛

### 인용 문헌

- Barker, Arthur. *Milton and the Puritan Dilemma, 1641-1660*. Toronto: U of Toronto P, 1942.
- Brown, Eleanor Gertrude. *Milton's Blindness*. New York: Columbia UP, 1934.
- Collins, John Churton, ed. *Samson Agonistes*. Oxford: Oxford UP, 1915.
- French, John Milton. "The Date of Milton's Blindness." *Philological Quarterly* 25 (1936): 93-94.
- . "Milton's Family Bible." *PMLA* 53.2 (1938): 363-366.
- Hunter, William B. Jr. "Some Speculations on the Nature of Milton's Blindness." Ed. J. Martin Evans. *John Milton: Twentieth-Century Perspectives, Volume 1: The Man and the Author*. New York: Routledge, 2003. 231-39.
- Keller, Helen. "The New York that Helen Keller 'Sees.'" *New York Times* Jan 31, 1932, sec. 5:3.
- Lauter, Paul. "Milton's 'Siloa's Brook.'" *Notes & Queries* New Series 5 (1958): 204-205.
- Marvell, Andrew. *Andrew Marvell: The Complete English Poems*. Ed.

- Elizabeth Story Donno. London: Allen Lane, 1974.
- Masson, David. *The Life of John Milton: Narrated in Connexion with the Political, Ecclesiastical, and Literary History of His Time*. 7 vols. London: Macmillan, 1859-94.
- Milton, John. *John Milton: Complete Poems and Major Prose*. Ed. Merritt Y. Hughes. Indianapolis: Bobbs-Merill, 1957.
- . *The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 Gen. Ed. Don M. Wolfe. 8 vols. New Haven: Yale UP, 1953-82.
- Parker, William Riley. *Milton: A Biography*. 2 vols. Oxford: Clarendon, 1968.
- Robbins, Harry F. "Milton's 'Sonnet XIX.'"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new series 7 (1956): 360-366.
- Tillyard, E. M. W. *Milton*. Revised edition. London: Chatto & Windus, 1966.

## Milton and the Blind Man in John 9

Abstract

Byung-Eun Lee

This study begins with a suggestion that Milton identifies himself with the blind man in John 9. It is an attempt to prove that Milton imagines himself to be similar to this man in the following respects: that he was especially chosen by God to become blind and therefore to serve some remarkable purpose; that he was stronger, rather than weaker, for his affliction since it enabled him to see with deeper insight the true light of God; and that his blindness was not the result of sin. Milton leans heavily on these points of comparison to defend himself against his political and literary enemies who challenged that his was deprived of his eyesight as punishment for writing sinful, hostile, and reactionary pamphlets. However, I hope to show further that this identification with the blind man in John 9 was not just a defense weapon with which Milton defied his accusers, but that Milton adopted it also as a sedative for his own conceit—to satisfy and console his ego with the idea that blindness could be good, purposeful, or even divinely ordained.

### Key Words

Milton, the blind man in the Gospel of John, *Paradise Lost*, *Defencio pro populo Anglicano*, the inner light

논문 투고 일자 : 2010. 6. 10.

논문 수정 일자 : 2010. 6. 30.

게재 확정 일자 : 2010. 7. 2.